서울마루 프로젝트 2021 지명설계공모

조선총독부 체신국 건물이 있던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2019년 3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상 1층, 지하 3층의 건축물과 함께 옥상공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을 '서울마루'라 부른다. '서울마루' 공간은 세종대로보다 약 3m이상의 높이에서 조성되어 새로운 눈높이로 주변 도시를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다. '마루'라고 이름이 붙은데에는 이곳에 머무르며 서울의 역사, 특히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쪽으로는 덕수궁(조선), 북쪽은 서울시의회(일제강점기, 경성부민관), 서쪽은 성공회 본당(대한제국), 동쪽은 서울시청(현대), 서울도서관(일제강점기), 서울광장 등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인 이곳에서 바삐 움직이는 차들과 사람들 곁에 휴식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에 본 공모를 통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히 머물며 일상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 나아가고자 서울마루 프로젝트 2021을 개최하게 되었다.

*마루란 전통적인 한국 주택에서 마루는 집의 중심이면서 모든 동선이 거쳐 가는 가장 넓은 공간이다. 취침, 노동, 여가, 독서활동 등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이자 접객, 연회 등 비일상 생활도 영위되었다.

2021. 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 공모개요

1. 공 모 명 : 서울마루 프로젝트 2021
2. 주　　제 : 공공개입 Public Intervention
3. 공모의 대상 및 범위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외관 및 서울마루
   - 서울마루 유리 난간 및 엘리베이터실,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및 서울마루 진입 계단부
4. 주최 주관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5. 공모방식 : 국내지명설계공모
6. 공모참가자격

   공모운영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아래의 5인의 건축가들에 한한다.
   - 김세진 (지요 건축사사무소)
   - 김사라 (다이아거날 써츠)
   - 김효영 (김효영 건축사사무소)
   - 박진택 (JTP Architecture)
   - 박희찬 (Studio Heech)
7. 참가등록 및 제출

   [참가등록]
   - 2021. 05. 07.(금) ~ 05. 11.(화) 17:00까지
   - 'sdkeh03@shour.kr'로 참가신청서 제출

   [작품제출]
   - 2021. 06. 11.(금) 09:00 ~ 17:00까지
   - 모든 제출물은 메일을 통해 제출한다.
   - 'sdkeh03@shour.kr'로 작품 제출
8. 공모일정
   - 참가등록 : 2021. 05. 07.(금) ~ 05.11.(화)
   - 현장설명 : 2021. 05. 10.(월) 11:00~12:30
   - 질의응답 : 2021. 05. 10.(월)
   - 작품접수 : 2021. 06. 11.(금) 09:00~17:00
   - 작품심사 : 2021. 06. 15.(화)
   - 작품심의 : 2021. 06. 22.(화)
   - 당선작발표 : 2021. 06. 25.(금)
9. 공모운영위원회

   [공모운영위원장(PA)]
   - 조민석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대표)

   [공모운영위원]
   - 강예린 (서울대학교 교수, SoA 건축사사무소 대표)
   - 양수인 (삶것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임미정 (홍익대학교 교수, stpmj 건축사사무소 대표)
   - 전숙희 (WISE 건축사사무소 대표)
   - 최춘웅 (서울대학교 교수)

   [지명 및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 공모운영위원장(PA)이 참여한다.

   [심사기준 및 방법]
   -추후 별도 공지예정.

□ 제출물

1. 서류(참가신청서, 공동응모협정서 등)

2. 발표자료 (20분, 필수)

- 발표시간 20분 내의 분량으로, 양식에 상관없이 구성하여 제출한다.
- 발표자료는 PDF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심사로 진행예정.

3. 모형 또는 비디오 (선택)

- 모형 혹은 비디오도 추가로 제출 가능하다.
- 모형을 제작할 경우 축적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하며, 2m×2m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 비디오는 발표시간 20분에 포함되어 재생할 수 있어야 된다.

4. 공통사항

- 모든 도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컬러 사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모든 도서에는 참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 특별하게 명기된 축척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하게 표현한다.
- 도면에 표현된 건축물과 대지의 크기 등 이미지 상의 효과를 위하여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상기사항의 위반은 모두 보고되어 심사위원회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 공모참가신청서와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 저작권법에 따른 타인의 초상권, 출품작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응모자의 책임으로 한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및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제외, 수상취소 및 시상내역(상장, 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한하여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 및 가공·변형의 방법으로 출판, 전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향후 주최 측은 필요한 경우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심사 및 선정은 선정한 심사위원의에서 진행하여 심사과정은 모두 녹화 및 자체 채널(Youtube)을 통해 생중계될 수 있다.
- 작품 접수량, 완성도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당선자 선정

1. 발표심사

- 심사는 2021년 06월 15일(화)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발표자는 심사 당일, 따로 공지하는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 시간에 늦은 참가자는 공지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면 마지막 순서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발표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 설명시간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발표자와 배석자는 공모공고일 이전 재직자 중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대표자 또는 실무자 권장)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을 명기한 재직증명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2. 당선자 선정

-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당선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 연락한다.
- 당선작의 종류와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선작	1작품	상금 10,000,000원
참여작	4작품	상금 각 1,500,000원

- 당선작의 설치비로 상금 외에 100,000,000원에 준하는 우선협상설계권을 갖는다. 해당 비용은 실비 정산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 상금에는 일체의 세금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며, 공동 응모의 경우는 대표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 주최자는 당선자가 작품설치를 포기하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선정을 하여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자의 경우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반환된 상금을 기존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주최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수상 작품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작품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하게 된다.

3. 당선 후 설치 시 유의사항

- 작품 설치는 2021.08.24.(화)전에 설치완료되어야한다.
- 작품 설계 및 설치 시, 설치 장소가 서울시 도심에 위치하여 있기에 도로통제 및 대형장비 반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작품 설치로 인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건축물에 하자 및 훼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훼손 사항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설계 지침

1. 공모 목적

- 모두에게 열린 공간 조성 / Public open space
  - 남녀노소, 시간과 계절의 구분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하고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서의 서울마루
  - 기존의 진입부를 최대한 활용, 쉽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다양한 도시적 행위(Urban Activity)가 가능한 공간 / Urban Platform
  - 강한 햇빛에도 도시적 활동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늘 공간 조성한다.
  - 또 다른 하나의 광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행위 및 휴식과 놀이, 인근 직장인들과 거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요 행사 및 전시장과 서울마루의 관계 제시
  - 오는 2021년 9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비롯하여 서울 도심의 주요지역에서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최된다.
  - 서울의 현안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 글로벌 도시연구 등이 비엔날레를 통해 진행되며, 본 전시관도 비엔날레 개최 장소의 한 곳으로 이에 대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시민들에게 본 행사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장으로서의 서울마루를 기대한다.

2. 설계 요건 및 필수 기능

- COVID-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구획이 이루어지는 작품의 필요성
- 서울마루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Urban Activity)의 요구
  - 서울마루는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또 다른 하나의 광장이다.
  - 이 광장에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그 누구나 휴식과 놀이, 퍼포먼스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아내고자 한다.
  - 또한, 도심 광장으로서의 역할뿐 만 아니라, 때로는 특별한 기간 또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도심에서는 하기 힘든 독특한 이벤트 등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맥락과 기존 대지에 대한 장소성 반영 / 랜드마크(Landmark)에 대한 다른 방향 제시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건축적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시청, 시청광장, 덕수궁과 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 프레스센터 등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아이디어 제시한다.
  - 구조물의 제작, 설치뿐 만이 아닌 바닥, 입면(파사드), 공간 등을 포함한 입체적 계획에서부터 마감재료와 그래픽, 텍스트에 이르는 세부사항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디자인의 제시한다.
- 한시적이지만 유연한 공간 / Flexible, Temporary
  - 특정한 시기, 주변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다채로운 도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되 한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
  - 폭우, 태풍 등 특수계절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서울마루 유리 난간, 엘리베이터실 등에 캘리그라피, 디자인 패턴 등 활용 가능)
- 같은 시기에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관 조형물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연관 조형물 정보는 추후 별도공지예정.

※ 문의사항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02-736-8050

※ 공모의 변경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 'https://sca.seoul.go.kr/seoulhour/site/urbanArch/home'를 통해 공지

□ 부록

– 세종대로의 역사적 가치

- 세종대로는 조선의 건국에서 대한제국의 출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심장부
- 광화문에서 시작된 조선왕조의 정치적 상징이었던 육조대로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황토현(현 광화문네거리)을 넘어 현 서울광장까지 연결되면서, 대한문 앞은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중심이 됨
- 세종대로는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가로가 되었고, 4.19혁명과 5.16쿠데타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곳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장소적 가치

- (구) 국세청 별관은 조선의 서학당길과 대한제국의 신작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구) 국세청 별관 대지를 광화문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건축유산과 다양한 시민활동을 담고 있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담는 장소
- 역사문화, 공공행정, 업무 및 금융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중심부이자 광화문–서울시청–숭례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변에 위치
- 역사의 현장을 짓누르던 건축물을 지우고, 잊혀졌던 역사의 현장을 드러냄으로써, 역사가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
- 서울의 문화 경관적 가치를 계승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반영된 공간 조성
-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한 역사적 장소성의 회복과 시민의 미래적인 활용 고려
- 대상지 동측으로 서울시의 업무중심인 서울시청이 위치하고 있으며, 프레스센터, SFC 등 업무·금융시설이 밀집
- 대상지 주변으로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숭례문 등 역사적인 문화재가 위치하며, 성공회서울성당, 서울특별시의회, 정동교회 등 서울의 근·현대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재 산재
- 대상지와 인접한 주변의 성공회 서울성당, 서울시의회 등을 고려한 인접부 및 진출입 계획을 한다. 성공회 성당과 연계된 기존 진출입 기능은 유지하며, 성당의 주차장과 인접한 경계 부분에 외부공간의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계획

□ 현장사진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